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2 MAR
Vol.230

봄, 우리의 새로운 시작!

삼성 KPMG

COVER STORY

봄, 일상의 행복을 기다립니다



Hello Spring

“봄은 올 것이고 행복도 같이 오겠지요.
기다려봐요. 삶은 점점 더 따뜻해질 거랍니다.”

- 애니타 크리잔 (Anita Krizzan)

봄은 웬지 모르게 설렘을 주는 계절입니다.
풍성하게 피어난 나뭇잎과 꽃들, 적당히 기분 좋은 온도와
햇살이 우리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해줍니다.

올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다시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MARCH 2022 Vol.230

삼성KPMG 뉴스레터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

People First I 18

GFC 내 사무공간 모두 스마트 오피스로!
공간의 혁신! 2022년 달라질 우리들의 스마트 공간

People First II 20

즐거움+재미+소통=행복한 일터
'제1회 삼성KPMG 챔피언십' 미리 보기!

People First III 22

'스포츠를 통해 감동과 행복을 키우다'
KPMG가 후원하는 골프선수는?

삼성인터뷰 24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삼성인 자녀에게 선물을 드려요!

이동규의 두줄칼럼 26

일등보다 일류가 되어라

心 Care 28

나만의 마음건강 레시피 만들기

Samjong News 30

'2022 KPMG 아이디어톤' 개최,
탄소중립 실현 위한 AI 기술 주제로 경합 펼쳐 외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가상자산 어디까지 왔을까?

08 Market Reader

NFT의 부상과 비즈니스 기회

10 Team Story

국내 최고 회계 전문가 그룹, DPP-Accounting팀

12 Client+

인공지능 검사설비 World No.1, 트윈

14 Expert's Advice

위기 혹은 기회? 물류산업 투자의 미래는?

15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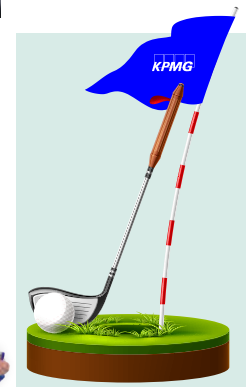
04p



18p



24p



20p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가상자산 어디까지 왔을까?

튕립 파동에 비견되는 버블 논란을 자아냈던 2017년 가상자산 열풍이 코로나19 이후 다시 재현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기존 투기 대상에서 투자 대상으로 변화되고, 다수의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이 산업과 연계된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활용하는 등 외연이 확장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가상자산의 변모 양상, 각 산업에서의 활용과 투자자의 시각 변화 등을 조망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020년 가상자산 시장의 변곡점,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다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분산 원장 또는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거래되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시초격이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국가 개입 없이 발행되어 익명성과 블록체인 내 상호 검증에 따라 거래되는 화폐로 고안되어 2017년 1차 가상자산 열풍의 중심에 놓였다. 3년 후인 2020년 가상자산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시중 유동성, MZ세대 중심의 위험자산 투자 수요와 비대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면서 2021년 11월 1비트코인(BTC) 가격은 6만 7,500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상자산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와 높은 변동성, 주식 등 전통자산과의 상관관계 증가, 가상자산 다양화와 비트코인 집중도 완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조 3,892억 달러로 2019년 말 대비 1,086%, 2020년 말 대비 228%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2017~2019년 중 0.01 수준에 불과했던 미국 S&P500 지수와 비트코인 수익률 간 상관계수는 코로나19 이후 0.36으로 상승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위험자산인 주식과의 동조성이 높아지며 가격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IMF, 2022.01., Cryptic Connections)

한편 2021년 12월 말 기준 전 세계 400여 개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종류는 8,554개로 다양화되면서 전체 시가총액 중 비트코인 비중은 2019년 66.8%에서 2021년 40.2%로 낮아지고, 이더리움을 비롯해 다양한 알트코인(Alt-Coin, Alternative Coin)이 발행·거래되고 있다.

**o 가상자산, 혁신과 투자의 영역으로 확대
금융사 및 일반 기업 그리고 국가들도 가상자산 투자 UP**

코로나19 이후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2.0 시대를 연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계약 등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외연을 확장 중이다. 특히, 토큰별 고유의 데이터를 부여한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예술품, 게임, 메타버스 등과 연계되며 자체적인 가상자산 기반 산업 생태

계를 형성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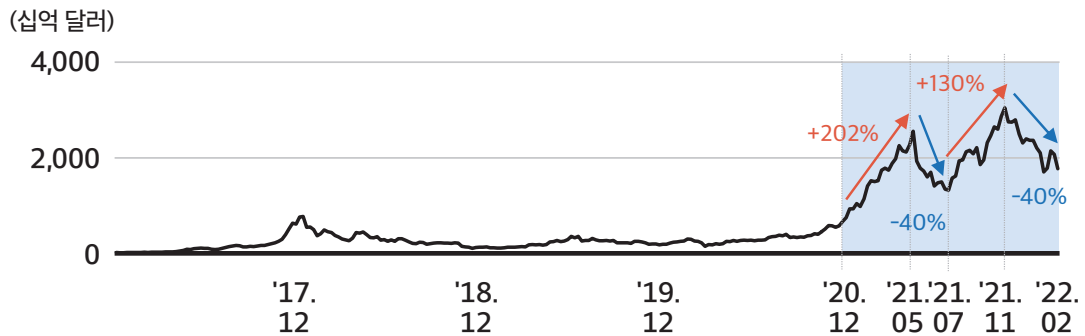
또한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 개인 간 결제 서비스, 담보대출, 예금, 자산운용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De-Fi)의 성장세도 높다. 디파이라마(DeFiLlama)에 따르면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자금 총 가치(Total Value Locked)는 2021년 12월 말 2,385억 달러를 넘어서서 2021년 6월 말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가상자산 산업 성장과 맞물려 금융사 및 일반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개발 중이다. 2021년 2월과 10월에는 캐나다와 미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ETF가 출시되고,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및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고 있다. 2022년 2월 25일 기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비롯해 테슬라,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등 38개 상장기업이 25.6만 개(전체 발행 예정량의 1.22%)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된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미 대형 은행도 가상자산 서비스를 출시 중이다. 2021년 상반기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기관 및 고액자산가 대상 가상자산 펀드 등을 잇따라 개발했다. JP모건은 2019년 자체 가상화폐 JPM 코인을 발행하여 해외 송금에 활용하는 한편 2020년 11월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조직 오닉스(Onyx)를 출범하며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금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중시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글로벌 연기금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를 최근 발표했다. 2021년 9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공무원/경찰공무원 퇴직연금기금의 가상자산펀드(5,000만 달러) 투자 발표에 이어 동년 10월에는 텍사스주 휴스턴 소방관 퇴직연금기금(Houston

가상화폐 시가총액 및 세부내역 추이



2019. 12월 말			2021. 12월 말		
상위 10대	시가 총액 (십억 달러)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중(%)	상위 10대	시가 총액 (십억 달러)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중(%)
비트코인 (BTC)	134.6	66.8	비트코인 (BTC)	960.9	40.2
이더리움 (ETH)	14.7	7.3	이더리움 (ETH)	483.6	20.2
리플 (XRP)	8.5	4.2	바이낸스코인 (BNB)	91.2	3.8
테더 (USDT)	4.1	2.0	테더 (USDT)	78.0	3.3
비트코인캐시 (BCH)	3.9	1.9	솔라나 (SOL)	61.2	2.6
라이트코인 (LTC)	2.8	1.4	에이다코인 (ADA)	48.7	2.0
이오스 (EOS)	2.5	1.3	리플 (XRP)	43.8	1.8
바이낸스코인 (BNB)	2.2	1.1	유에스디코인 (USDC)	42.4	1.8
비트코인에스브이 (BSV)	1.8	0.9	루나 (LUNA)	36.3	1.5
스텔라루멘 (XLM)	0.9	0.5	폴카닷 (DOT)	30.9	1.3

Source: Statista, CoinMarketCap, 삼정KPMG 경제연구원

주요 기관투자자 및 기업 비트코인 보유 내역

구분	비트코인 보유 수량 (천 BTC)	비트코인 보유 가치 (십억 달러)	예상발행량 대비 비중 (%)	비고
ETF	814	31.8	3.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ayscale Bitcoin Trust(미국) CoinShares / XBT Provider(스웨덴) Purpose Bitcoin ETF(캐나다) 등
개별 국가	271	10.6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핀란드 등
상장기업	256	10.0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미국) 테슬라(미국) 갤럭시 디지털(미국) 보이저 디지털(캐나다) 등
비상장기업	174	6.8	0.83	
기타	10	0.4	0.05	
총계	1,526	59.6	7.27	

Source: <https://www.buybitcoinworldwide.com/treasuries/> Note: 2022년 2월 25일 기준

Firefighters' Relief and Retirement Fund)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2,500만 달러(운용자산 대비 0.5%) 투자를 발표했다. 또한 2021년 11월에는 호주 연기금 중 최초로 소매직원퇴직연금신탁(Retail Employees Superannuation Trust, REST Super)도 가상화폐 매입을 결정했다.

가상자산과 프로젝트 간 '혁신성'과 '확장성'에 주목해야

2022년 들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강화 등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비판론과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을 비롯해 영란은행 앤드루 베일리 총재 등은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제롬 파월 미연준 의장 역시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큰 투기 대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내재가치 없이 설계된 토큰에 대한 폰지 사기, 해킹이나 자금세탁, 투자자에 대한 정보 불충분 등 가상자산의 안정성과 투자자 피해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이용자가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상 모든 거래에서 상호 신뢰성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핵심적인 인프라로 역할을 하며,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가상자산의 유용성이나 가치에 대해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는 가상자산 그 자체보다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구현하

는 과정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어떻게 활용하여 참여자 간 신뢰성을 획득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산업 간 융합과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속 수많은 가상자산이 출현·퇴출되며 도전과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는 가상자산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산업·사업의 기술력과 사업모델의 유용성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접근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준비해야 한다.

CONTACT US

**전자정보통신산업1본부
신문철 상무**
Tel. 02-2112-0356
E-mail. moonchulshin@kr.kpmg.com

경제연구원 김규림 이사
Tel. 02-2112-4089

E-mail. gyulimkim@kr.kpmg.com





NFT의 부상과 비즈니스 기회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이 디지털 이미지 5,000여 점을 하나의 JPG 파일로 콜라주한 NFT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는 2021년 3월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4만 달러에 입찰됐다. 또한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2006년 작성했던 최초의 트윗 한 줄로 만든 NFT는 290만 달러에 팔리는 등 믿기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부상하고 있는 NFT에 대해 알아보고, 태동기의 NFT 시장에 어떠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지 살펴본다.

○ 디지털 소유권의 시대를 열어갈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란 의미의 NFT(Non Fungible Token)는 토큰 1개당 각각 다른 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서로 동일한 가치로 거래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토큰(FT, Fungible Token)과 NFT는 구분된다. NFT는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원천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의 인증과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일종의 등기부등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디지털 예술품부터 게임 아이템, 음원, 사

진, 동영상까지 디지털 공간의 다양한 상품은 NFT로 만들어 거래될 수 있다.

사람들은 왜 오늘날 NFT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구글에서 ‘피카소’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이미지가 있고, 그것을 캡처해 저장하고, 심지어 프린트해서 집에 걸어 둘 수도 있는데 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복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이 갖는 고유성 때문이다. NFT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본인만 가질 수 있다는 특별함을 주며 인간의 수집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NFT가 구매자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가치는 바로 커뮤니티 안에서의 유대감과 소속감이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발행하는 NFT 포토카드나 디지털 굿즈는 팬들을 보다 끈끈하게 결속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더 열성적인 팬덤 기반을 만들도록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NFT의 산업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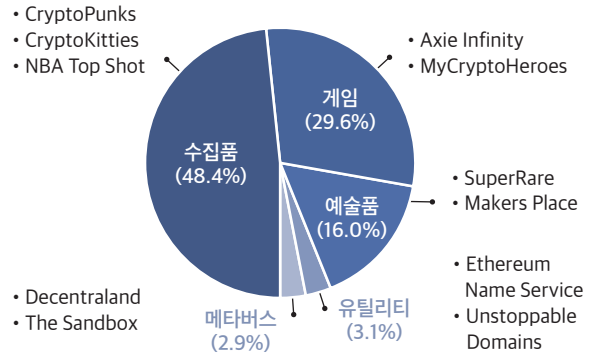
태동하는 NFT 시장에서 파생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는 풍부하다. 현재 무형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게임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가 NFT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 모델이 광고나 구독형 서비스가 주를 이루던 가운데, NFT를 자사 콘텐츠 IP(지식재산권)에 활용할 경우 직접적인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캐나다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퍼랩스(Dapper Labs)가 선보인 ‘NBA 탑 샷(NBA Top Shot)’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대퍼랩스는 스포츠 선수와 선수단과 협약을 맺고 농구 선수의 하이라이트 사진을 NFT 카드로 제작해 NFT 마켓플레이스(거래소)에 배포했으며, 선수들의 유명세에 따라 NFT 카드의 가격이 상이하게 거래되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블록체인과 NFT 기술이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에 적용되어 P2E(Play-to-Earn)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가령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글로벌 판 미르4의 경우, 이용자는 흑철이라는 게임 속 재

대체 가능 여부에 따른 자산의 구분

대체 가능성 \ 자산	물리적 자산	디지털 자산
대체 가능 (Fungible)	현금	FT (Fungible Token)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금, 은	NFT (Non Fungible Token) 음원 파일 사진, 영상
대체 불가능 (Non Fungible)	예술품	
	소장품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분야별 NFT 시장 비중



화를 채굴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코인과 교환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NFT 게임의 시초격인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게임의 경우, 이용자는 NFT로 자산화된 고양이를 수집하고, 서로 다른 종을 교배해 얻은 새로운 고양이를 되파는 형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용자가 게임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아울러 NFT는 오늘날 메타버스와 성장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 가상 세계에서 경제 시스템을 지탱해 주고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거래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소유 증명이 가능한 NFT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든 빅테크 기업, 통신사, 유통사들도 NFT 사업을 병행하며 준비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NFT

그동안 디지털 예술품이나 음악, 사진 등 무형의 콘텐츠는 무단으로 복제되어 사용되고, 이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NFT는 가치 증식이 어려웠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 문화를 확산시키며, 개인 작품을 공유하고는 싶지만 무단 복제를 원치 않는 창작자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혁신이 틀림없다.

하지만 NFT가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기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NFT에 대한

과세 문제와 더불어 탈세와 불법 증여, 자금 세탁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NFT화된 디지털 자산을 자전거래해 의도적으로 가치를 올린 사례도 생기고 있고, NFT 모조품 등록으로 인한 저작권 이슈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급성장한 NFT 시장이 현재 비이성적으로 과열되었다는 시각도 있고, NFT를 허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기술도 그렇듯 처음부터 100% 완벽한 기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회에 정착하곤 한다. 아울러 기술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다. 부상하는 기술의 강점과 한계를 인지하고 시야를 넓혀 NFT가 촉발한 패러다임 변화를 직접 만들어 가보는 것은 어떨까?

CONTACT US

전자정보통신산업2본부
안창범 상무
Tel. 02-2112-0312
E-mail. cahn@kr.kpmg.com



경제연구원
김기범 책임연구원
Tel. 02-2112-7430
E-mail. kkim28@kr.kpmg.com



국내 최고 회계 전문가 그룹, DPP-Accounting팀

삼정KPMG는 복잡해진 경영환경 아래 기업들에게 최상의 회계감사 품질을 제공하고, 리스크를 예방하며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DPP-Accounting팀을 운영하며 감사, 비감사 관련한 다양한 회계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회계 전문가 그룹, DPP-Accounting팀을 만나본다.

Quality는 향상하고, Risk는 줄이고!

자본시장의 발달과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높은 수준의 회계정보 산출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나온 회계기준들은 내용도 어렵지만, 적용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판단을 필요로 한다.

삼정KPMG는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감사 및 자문 업무 수행 시 제기되는 다양한 회계 이슈들을 자문하는 DPP-Accounting팀(이하 Accounting팀)을 운영하고 있다.

Accounting팀은 법인이 제공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회계 처리와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 팀에서 가장 많이 집중하는 노력은 다양한 회계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에 법인 구성원들이 감사와 비감사 업무를 가리지 않고 회계 처리에 관해 질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 두고 있다.

또한 법인이 발행하는 감사 보고서의 품질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사전에 선별된 감사업무에는 감사팀과 회계 이슈를 1년 내내 수시로 논의할 Accounting팀 담당자를 지정하고, 감사팀이 중요한 회계 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Accounting팀 담당자가 감사보고서 발행 전에 재무제표를 점검하고 있다. 회계자문 업무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회계 처리에 대해 법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한다면 반드시 Accounting팀의 검토를 거쳐야 발행된다.

이와 함께 법인 구성원들의 회계 역량을 키우는 정기적인 Quality 향상을 위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회계 교육 콘텐츠를 고민하고, 회계 데이터베이스(Alex 내 Accounting library) 등을 구축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새로운 회계 기준서나 코로나19 등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관련된 회계 이슈에 대해 안내하며, 자주 받는 질의 내용 혹은 구성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회계 이슈가 있다면 교육 발간물 등 여러 매체를 이용해 법인 내 구성원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기 감사인과 후임 감사인의 회계 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회계 처리에 대한 외부 질의가 있는 경우, 감리 등에서 수행해온 업무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의논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경험과 실력은 물론 회계를 사랑하는 베테랑 집단

Accounting팀은 밤낮으로 회계기준을 공부하며 이슈에 답을 찾는 일을 즐기는, 자타공인 회계를 사랑하는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10년 이상 IFRS Accounting의 실무 적용을 고민해 온 전문가들로 KPMG Global의 IFRS 연구조직인 KPMG IFRG과 국내 유관 기관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이들은 각자 2~3개의 회계 토픽을 담당하며, 그 분야에서 일어나는 법인 내의 질의, 국내외 기준제정기구 논의, 국내 규제 기관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ccounting팀의 강점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직급, 경험, 나이와 관계없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토론한다. Accounting팀에서는 회계기준에 대한 법인의 방침을 정할 때 감사팀들이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실무적인 기준’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들을 자주 마주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Accounting팀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찾고, 생각의 틀을 함께 만들며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Accounting팀은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법인의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감사팀에 필요한 것을 먼저 제시하는 팀이 되고자 한다. 회계를 사랑하고, 관련 기준에 대한 연구와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Accounting팀이 회계 품질은 높이고, 리스크는 낮추며 기업들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데 일조하는 팀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본다.

Accounting팀의 주요 서비스

- 감사/비감사 등의 회계 질의 답변
- 감사 보고서 발행 전 재무제표 점검
- 내부 회계교육 콘텐츠 및 교육자료 발간
- 회계 이슈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 회계 이슈 사전 공지 및 회계 처리 이슈 사전점검



DPP-Accounting팀, 각오 한마디

현승임 전무

shyun@kr.kpmg.com



“우리 팀은 수많은 회계 이슈에 대해서 현업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인사이트로 무장한 인재들로 구성된 팀으로, Big4 중 가장 우수한 팀이라 자부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팀 덕분에 감사본부의 많은 회계사들이 든든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도 자주 듣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항상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를 떠올려주세요!”

이지원 상무

jeewonlee@kr.kpmg.com



“우리 팀은 질의하는 Engagement팀과 우리가 One team이라는 마음으로, 고민하는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상무

shan1@kr.kpmg.com



“우리 팀은 IFRS 기준이 도입되고 난 후 회계기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숙련된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법인의 위험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회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에 창립한 트윈은 다양한 제조 공정의 제어사업으로 시작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머신 비전 표준화를 주도하고, 인공지능 비전 검사로 생산품의 품질을 높여주는 제조 산업의 해결사이다. 이번 호에서는 임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37세인 젊은 인재로 구성된 트윈의 저력을 엿보려 한다.



인공지능 검사설비 World No.1, 트윈



○ 위기를 기회로! 인공지능 검사 설비 & SW 선보이며 성장ing!

트윈은 '어렵고 위험한 업무는 시가, 창조적인 업무는 사람'이란 모토로, 제조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충북 대학교 창업 동아리 회장 출신인 정한섭 대표가 후배들과 함께 시작한 스타트업으로 PLC 제어사업을 시초로, 삼성디스플레이와 협업을(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머신비전 표준화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면서 인지도와 기술을 쌓아왔다. 그 결과, 삼성디스플레이의 Exclusive Partner (머신비전 부문 독점 협력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8년 주력 산업의 침체와 고객 확대 부진으로 회사의 위기가 찾아왔다. 트윈은 현명하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인공지능 비전 검사 사업으로 확대했으며, 2년간의 개발 끝에 T-MEGA라는 인공지능 검사 설비와 MOAI라는 인공지능 검사 소프트웨어(SW)를 선보이며 위기를 극복했다. 인공지능 비전 검사 설비와 함께 트윈은 매년 2배의 성장을 하고 있다.

트윈은 지난 2018년에 코스닥 상장을 시도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철회한 이후 초정밀 얼라인먼트 기술력과 미개척 분야인 인공지능 비전 검사 사업을 이끌어 가는 부분을 높이 평가받아 2021년 11월 17일에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코스닥 상장 후에는 ICT 산업 발전 기여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 롤기반 & 인공지능 모두 섭렵한 기술력

트윈의 사업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인공지능 비전 검사 설비는 제조 공정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사람에 의해 작업되는 품질검사 공정을 인공지능화한다. 그동안 육안 검사 또는 롤기반 검사로 걸러내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불량률 인공지능으로 검사하여 검수율 99.9% 이상을 보장하면서 품질계의 혁신이라 평가받고 있다. 트윈의 차별화는 라이선스 형태의 인공지능 검사 소프트웨어만 공급하는 것이 아닌, 하드웨어까지 고객의 생산품에 맞게 설비를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불량에 대한 학습과 분석까지 모두 진행해 안정화를 보장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금속 부품, 식음료, 2차 전지, 전기 전자 등 다양한 산업에 구축하며 국내 최대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게 됐다.

두 번째는 롤기반 얼라인먼트(Alignment) 비전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오차 없이 위치를 보정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모듈에 있어서 위치 보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어느 때보다 정밀함이 요구된다. 트윈은 이러한 초정밀 기술을 인정받아 우리가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등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구축했고, 식품 포장, 2차 전지, 바이오 검사기 등 다양한 산업에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 수평 문화와 가정 & 일 양립 가능한 회사 문화

트윈의 구성원들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젊은 조직이다. 젊은 구성원들로 인해 사내 문화 역시 수평적이며 자유롭다. 자유로운 연차 사용은 물론이고,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운영함으로써 육아와 업무를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먼 거리 직원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의 편리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육을 증축해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 근무할 수 있게 변신했다. 기존 2층 건물을 5층으로 늘려, 여기에 실내외 체육관, 휴식공간, 카페테리아, 사내 식당 등을 추가하고, 업무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증대됐다.

○ 기업과 사회의 아름다운 상생을 위한 노력

트윈의 정한섭 대표는 기업이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신념

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충북대학교 장학금 기부를 시작으로 아산재단 어린이 병동 기부, 그리고 매년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트윈의 임직원들은 선한 영향력이 온 세상에 퍼져 뿌리를 내리고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는 꽃이 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트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이뤄가는 기업으로 '2021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트윈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글로벌 SI 검사 설비 시장을 주도해 가고자 한다. 그 결과 2016년에 설립한 베트남 법인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지만 2020년 설립된 인도 법인 역시 조만간 성과가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윈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조 산업이 발달된 중국, 대만, 미국, 일본 등으로 무대를 넓히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머지않아, 전 세계 공장에서 트윈의 인공지능 비전 검사기로 품질 검사하는 시대가 곧 오리라 믿는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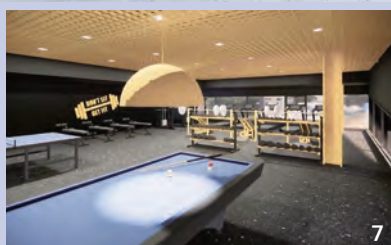
4



5



6



7

1. 화성에 위치한 트윈 본사 전경
2. 2021년 11월 17일, 코스닥 상장 기념 사진
3. 2021년 11월 25일 ICT 발전 유공자 포상 기념 사진
4. 식품용 인공지능 비전 검사기, T-MEGA
5. 금속 부품용 인공지능 비전 검사기, T-MEGA
6. 매년 진행하는 보육원 생필품 기부 봉사
7. 임직원들이 여가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

위기 혹은 기회? 물류산업 투자의 미래는?

최근 물류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기를 누리는 가운데, 물류센터의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물류센터 투자에 대한 우려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물류산업의 현황과 당면한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삼정KPMG 전문가에게 답을 구해봤다.



Q1 최근 물류산업이 호황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류산업의 성장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온라인 시장으로 진입하며 나타난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는 쿠팡, SSG닷컴, 컬리 등 주요 이커머스가 급속도로 성장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빠르게 집 앞으로 배송받는 편리함을 경험했고, 온라인 상품군이 점차 다양해지며 상품의 보관과 운반, 즉 물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PL(Party Logistics) 물류체계의 확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자사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는 1PL물류 체계에서 벗어나 제3의 전문 기업에게 물류 사업을 이관하는 3PL을 택하며 물류 산업 역시 호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Q2 물류산업의 호황 속 물류센터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일각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생긴 물류센터로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의 수도권 집중 분포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여전히 향후 수요의 증가는 공급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류센터 공급과잉 이슈의 경우, 비대면 소비 패턴 고착과 D2C(Direct to Consumer) 트렌드의 부상으로 물류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도권 집중 분포는 물류센터의 인허가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이 점점

더 다변화되며 해소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에 대한 고민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산업 트렌드에 어떻게 기민하게 대응할 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물류센터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요?

과거에는 상품 보관, 품질 보존, 재고 손실의 최소화에만 중점을 두고 생산지 인근에 물류센터가 지어졌습니다. 반면 최근 각광받는 라스트마일(Last-Mile)은 여러 배송 단계 중 소비자와 만나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중점을 두어 소비자와 직접 교류할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합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는 신규 진입형, 공유 경제형, 다크 스토어형 등 다양한 산업의 플레이어가 물류시장에 진입하여 산업 간 경계를 허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 경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기업 간 협력적 경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물류센터와 결합시켜 물류센터의 디지털 자동화에 노력한다면 최적의 입지 조건을 넘어 물류센터의 본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Deal Advisory4본부 서광덕 상무
Tel. 02-2112-0170
E-mail. kwangdukseo@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1월 24일 게재된 한국경제 [한경 CFO insight] [삼정KPMG CFO Lounge] 물류센터 투자의 미래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이번 호 '맛있는 경제'에서는 현실과 가상 세계를 접목시킨 새로운 세계와 식품과 기술로 펼쳐진 새로운 비즈니스 용어에 대해 배워보려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통계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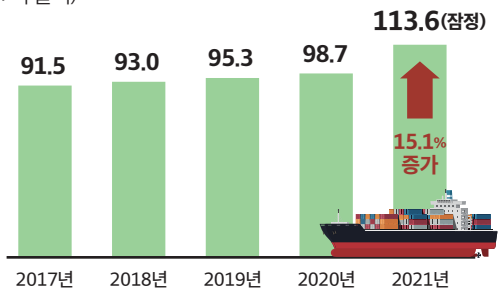
'K-푸드 세계로!' 2021년 농수산물 수출 114억 달러... 역대 최대



지난해 글로벌 물류 대란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영향에도 농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농수산물 수출액(잠정)이 전년보다 15.1% 증가한 113억 60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국제적 물류대란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건강식품 및 가공식품 인기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고른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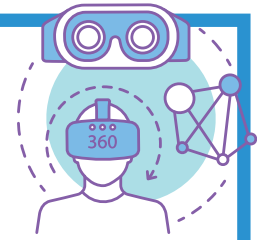
농수산물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혼합현실

(MR, Mixed Reality)



현실 세계에 가상 현실(VR, Virtual Reality)을 접목시켜 실물과 가상 객체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을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의 열풍이 불고 있다. 페이스북은 메타버스에 힘을 더하기 위해 사명을 메타로 변경했으며, 올해 VR 헤드셋 제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애플 역시 VR, AR 헤드셋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푸드테크

(Food Tech)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용어로, 식품 업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식품 분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면서 식품 생산, 유통, 가공, 서비스, 배달 등에 생긴 새로운 시장을 의미한다. 인구 증가, 환경오염, 국가별 식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났으며, 그 예로는 식품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 대체식품 생산, 새로운 식자재 발굴 등이 있다. 한편, 지난 1월에 개최된 CES 2022에서 국내외 기업이 작물 재배, 식자재, 조리, 잔반 처리 등 다양한 푸드테크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CES 주최 측은 앞으로 푸드테크 시장 규모가 2027년이면 3420억 달러(약 4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Happy workplace



People First I

GFC 내 사무공간 모두
스마트 오피스로!
공간의 혁신! 2022년 달라질
우리들의 스마트 공간

18

People First II

즐거움+재미+소통=행복한 일터
'제1회 삼성KPMG 챔피언십'
미리 보기!

20

People First III

'스포츠를 통해 감동과
행복을 키우다!'
KPMG가 후원하는 골프선수는?

22

삼성인터뷰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삼성인 자녀에게
선물을 드려요!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일등보다 일류가 되어라

26

Samjong News

'2022 KPMG 아이디어톤' 개최,
탄소중립 실현 위한 AI 기술
주제로 경합 펼쳐 외

30

心 Care

나만의 마음건강 레시피 만들기

28

People First I

GFC 내 사무공간 모두 스마트 오피스로! 공간의 혁신! 2022년 달라질 우리들의 스마트 공간

People First! 삼성KPMG는 인재를 존중하는 문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계획으로는 2022년에 GFC 내 모든 업무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로 탈바꿈한다. 어떻게 변화될지, 2022년 새롭게 달라질 법인의 스마트 오피스를 미리 만나보자.



◦ 밝고, 쾌적하고, 스마트하게! 2022 New Workplace

삼성KPMG는 구성원들에게 최고의 업무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강남파이낸스센터(GFC) 8층을, 2020년에는 GFC 28층을 스마트 오피스로 전환하여, 쾌적하고 스마트한 업무 공간을 마련했다. 2022년에는 People First를 위해 GFC 내 삼성KPMG 업무 공간 전체를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한다. 새로운 스마트 오피스는 삼성인들의 선호에 따라 층과 좌석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넉넉한 회의실과 여유로운 라운지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의 기간 동안 2개 층씩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KPMG는 구성원들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각 Function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TF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 자연친화적이면서 내추럴함이 묻어나는 플랜테리어를 활용한 입구
2. 넉넉한 공간으로 구성원들의 힐링 공간이 될 휴게 라운지
3. 탁 트인 오픈형으로 구성된 업무 공간
4. 172개로 확충된 회의실. 비대면 회의를 고려하여 각 회의실에는 55인치 대형 모니터를 설치한다
5. 마치 집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구성된 Homezone
6. 구성원들의 힐링 공간이 될 휴게 라운지, 각 층마다 다양한 컨셉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스마트 오피스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삼성KPMG 스마트 오피스를 미리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형태의 업무 공간



○ 새로운 스마트 오피스 어떻게 달라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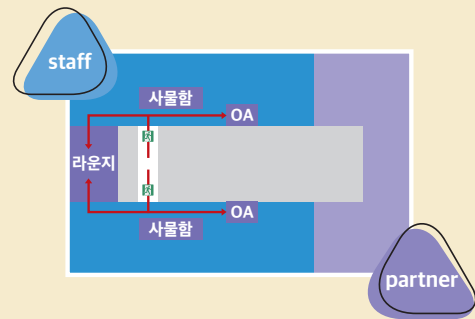
먼저 도서관형, 칸막이형, 카페형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 공간을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좌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무하는 공간으로 변화된다. 이를 위해 Function이나 본부 구분 없이 원하는 층, 원하는 형태의 좌석을 이용하도록 모든 층에 예약 시스템을 적용하며, Senior Director 이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Hoteling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Staff을 우선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변화된다. Staff들의 좌석을 우선 고려하여 파트너와 직원의 업무 공간을 구분 짓고, 라운지와 OA룸, 사물함 등의 위치도 Staff의 동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배치된다. 무엇보다, 업무 공간 분리를 통해 창가 쪽이 완전히 개방되어 기존보다 여유 있는 전망과 밝은 분위기의 사무실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니즈(Needs)를 고려한 프로젝트룸과 회의실이 마련된다. 팀 단위의 소규모 업무 진행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목적과 인원 규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172개로 2배 이상 확충했으며, 모든 회의실에는 화면 공유와 온라인 미팅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55인치 대형 모니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바쁜 일상 속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여유로운 라운지도 모든 층에 마련된다. 총별 여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하는 다양한 컨셉의 라운지에서 구성원들 모두가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taff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 공간



회의실을 2배로! 172개 확보

AS-IS		TO-BE	
층	회의실	층	회의실
29F	1	29F	18
28F	27	28F	27
27F	12	27F	27
11F	2	11F	26
10F	1	10F	25
9F	5	9F	13
8F	36	8F	36
계	84	계	172

People First II

즐거움+재미+소통=행복한 일터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 미리 보기!

‘People First - 인재 존중의 문화’를 추구하는 삼정KPMG는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2022년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최근 MZ 세대들에게 새롭게 떠오른 인기 스포츠인 골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하여,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 오는 4월에 열릴 이 대회를 미리 살펴보자.

○ 지금은 골프 봄! 올봄 열리는 골프대회 ‘삼정KPMG 챔피언십’

삼정KPMG는 생활 속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법인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삼정 KPMG 챔피언십’을 개최한다. 최근 MZ 세대를 포함한 2030 영골퍼의 대거 등장으로 골프가 전 연령층을 위한 건강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골프 인구 증가와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Director 이하 직원들이 동료들과 한 팀을 이뤄 취미를 즐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삼정KPMG 챔피언십’을 준비했다. 이번 대회는 감사본부의 어느 한 S.Senior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으며, 대회 역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진행하고자 Function별 대표를 선정해 대회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소통 중이다.

오는 4월 19일 조 추첨을 통해 대진을 완성한 후, 4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예선 경기가 진행된다. 예선전은 4월 26일, 5월 3일, 5월 10일, 3차례에 걸쳐 열리며, 예선 경기가 끝나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5월 16일에 16강, 5월 19일에는 8강, 5월 24일에는 4강전을 치르고, 5월 31일에 대망의 결승전과 3~4위전 경기가 열린다.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임직원들도 본부별 출전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 경기 실황도 공유될 예정이다.

대회 우승팀은 우승 트로피와 500만 원의 상품권을, 준우승팀에는 300만 원을, 3위 팀은 200만 원, 4위팀은 100만 원의 상품권을 수여하고, 5~32위의 참가 팀들에게도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팀별 시상뿐만 아니라 참가 선수들에 대한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대회 속 대회로 장타 선수들을 위한 ‘삼정KPMG 롱드 라이브 챔피언십’도 열린다. Director 이하 직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 참가 접수를 통해 3월 29일, 4월 5일, 4월 11일에 예선전이 열린다. 이 대회 역시 참가 선수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골프를 즐기지 않는 구성원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됐다. 경기별 결과 맞추기 이벤트를 비롯하여 중계 도중 다양한 퀴즈쇼도 진행되어 퀴즈 정답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이 증정된다. 또한, 포토존 인증사진 이벤트와 본부 응원전 이벤트도 진행된다. 본부 응원전 이벤트에는 본부별 예선전 진행 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해 응모할 수 있다.



People First III

‘스포츠를 통해 감동과 행복을 키우다!’ KPMG가 후원하는 골프선수들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 개최를 앞두고, KPMG에서 공식 후원 중인 프로 골프선수들을 만나보려 한다. 이들은 KPMG 로고가 있는 모자를 쓰고, KPMG의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다. KPMG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전 세계 프로 골퍼들과 함께 KPMG가 매년 개최하는 메이저 골프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인간 승리의 주인공, 골프여제 스테이시 루이스 (Stacy Lewis)

출생 1985. 2. 16. 미국 **데뷔** 2009년 LPGA 입회 **통산** 13승 (메이저 대회 2승)
스테이시 루이스는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다. 8세 때 골프를 시작한 루이스는 11세 때 척추측만증으로 척추에 철심 5개를 박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골프의 길을 고집했다. 2008년 단번에 LPGA 투어 Q 스쿨을 통과, 2009년부터 LPGA 투어에서 활약했다. 루이스는 LPGA 투어 대회 13승(메이저 2승)의 베테랑으로 2011년부터 16년 기간에 26주의 넘버원을 포함해 264주 연속으로 세계 랭킹 10위를 유지했다. 한편, 2018년 10월 말에 딸을 낳고 2019년 1월 투어에 복귀, 1년 6개월 만에 ASI 레이디스 스코티시 오픈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루이스는 최연소로 2023년 솔하임컵 미국팀의 단장에 임명됐다.

역사를 써 내려갈 흑인 여성 골퍼 머라이어 스택하우스 (Mariah Stackhouse)

출생 1994. 03. 14. 미국 **데뷔** 2017년 LPGA 입회

2011년 17세 당시, US 여자 오픈에 진출한 최연소 흑인 선수이며, 2014년에는 미국이 우승한 커티스 컵 팀에 소속된 첫 흑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마추어 선수 시절 주니어 골프 대회에서 100번 이상 우승한 이력이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4년간의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마치고, LPGA 투어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했다. 스택하우스가 투어 자격을 얻었을 때, 그녀는 LPGA에 진출한 7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선수였다. 그리고 현재 투어에서 유일하게 풀 타임으로 활동하는 흑인 선수이다. 2019 샵라이트 LPGA 클래식 (ShopRite LPGA Classic)에서 5위를 기록했다. 이는 LPGA 투어 경력 중 최고의 결과이다.



한국어 공부하는 PGA 선수 매버릭 맥닐리 (Maverick McNealy)

출생 1995. 11. 7. 미국 **데뷔** 2017년 PGA 입회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를 나온 매버릭 맥닐리는 2017년 아마추어 세계 랭킹 1위까지 오른 선수이다. 2부 콘페리 투어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PGA 투어에 뛰어들었다. 매버릭 맥닐리는 2021 PGA 투어 포티넷 챔피언십 2위, 2021 PGA 투어 AT&T 페블 비치 프로암 2위를 기록했으며, 2020-21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Top25, 11위에 올랐다. 한편, 맥닐리는 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미교포 대니엘 강과 공식 커플이다. 그는 여자친구의 영향도 있지만,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소통하는 것이 존중의 표현이라 생각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아일랜드 역사상 첫 LPGA 우승 리오나 매과이어 (Leona Maguire)

출생 1994. 11. 30. 아일랜드 데뷔 2020년 LPGA 입회

그녀는 아마추어 세계 랭킹 1위 출신으로,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그리고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여자 아마추어 골프 랭킹 세계 1위에 올랐다. 매과이어가 정상에 오른 135주는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이다. 2019년 LPGA 2부 투어에서 2승을 올린 뒤 2020년 정규 투어에 데뷔했다. 여자 골프팀 대항전인 2021 솔하임컵에서 유럽팀의 우승을 이끈 장본인이다. 특히, 아일랜드 선수 최초로 LPGA 투어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 우승 기록을 남겼다. 그녀는 2022 LPGA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에서 3타 차로 우승했다.

아이슬란드 최초의 LPGA 선수 올라피아 크리스티나도티르 (Olafía Kristinsdóttir)

출생 1992. 10. 15. 아이슬란드 데뷔 2017년 LPGA 입회

2008년과 2009년 아이슬란드 골프 랭킹 1위 선수 크리스티나도티르는 얼음 왕국 아이슬란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선수이다. 그녀는 2017년 아이슬란드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꿈의 무대 LPGA 투어에 진출했다. 또한 그 해, 골프선수 최초로 아이슬란드 올해의 스포츠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KPMG Women's PGA Championship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 상금: 4,500,000달러



KPMG는 여자 골프 격상과 나아가 여성 리더십 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미국프로골프협회, LPGA 투어와 손잡고 KPMG Women's PGA Championship을 창설해, 매년 개최 중이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박인비(2015), 박성현(2018), 김세영(2020)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바 있다. 2022년에는 6월 23~27일에 개최된다. 이 대회 주간에는 The KPMG Women's Leadership Summit이 대회 현장에서 개최되는데, 이는 여성 리더들이 고위 관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편, KPMG Women's PGA Championship과 The KPMG Women's Leadership Summit의 수익금으로 KPMG Future Leader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22명의 상위권 여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장학금, 리더십 수련회, 멘토링, 골프 입문 등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수여한다.

엠버서더와 함께 하는 나눔 활동 KPMG Blue for Books Program

KPMG는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스테이시 루이스, 머라이어 스택하우스, 매버릭 맥닐리 등의 파란 모자가 판매될 때마다 3권의 책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기증되는 KPMG Blue for Book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시작된 이래 267,000권 이상의 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증됐다. 모자 기부 외에도 KPMG 골프 엠버서더들이 우승을 할 때마다 대회 시장 내 초등학교 도서관에 신간 도서와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삼정인 자녀에게 선물을 드려요!

삼정KPMG는 삼정인들이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을 이뤄가도록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 노력 중 일환으로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매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삼정인들에게 입학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97명에게 선물과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호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 축하 선물의 생생 후기를 담아본다.

“아빠 회사 최고!”를 수없이 외치던 아들

선물은 언제 받아도 기쁜 것이지만, 본인을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아빠 회사에서 보내준 서프라이즈 선물은 8세 꼬맹이에게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아빠 회사 최고!”를 수없이 외치며 스스로 모든 선물을 꺼내 보았고, 그 중 가장 아이의 취향을 저격했던 것은 최애 캐릭터가 그려진 필통과 지갑, 그리고 회장님의 편지였어요. “김교태 아저씨는 아빠랑 많이 친한 분이냐”고 묻는 순수한 질문에 아빠, 엄마는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하하. 선물 받은 학용품들을 책가방에 넣고 등교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2년을 꽉 채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생활 속에서도 해맑기만 한 우리 아이의 새로운 시작은 부디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재홍 Manager (Deal Advisory2)

최애 캐릭터로
취향 저격!



선물도, 행복도
한가득!



◦ **보물창고에 고이 간직한
소중한 선물**

둘째라 항상 귀엽고 아직도 어리기만 한 것 같은데, 벌써 8살이 되어 초등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엄마 회사에서 입학 선물을 준다고 함께 고를 때도 신중하게 고르더니, 선물 받은 날도 엄마 회사로 전화해서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집에 와 보니 본인만의 보물창고 안에 고이 간직해 두었더라고요. "회장님이 편지도 써주시고, 민준이 학교 가는데 많은 축하를 받네~!"라고 하니 "회사에서 가족 선물도 보내주고 엄마! 일 열심히 해야 하겠다!" 대답해 한참 웃었네요. 아이도 선물을 받으며 엄마 회사를 자랑스러워하니, 저 역시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이와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아 사랑하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한다!"

정유진 Director (Q&RM-DPP)

◦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 선물!**

뜻하지 않게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위한 선물을 받게 되었네요. 작년에 법인에 입사한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물들이 모두 마음에 들었지만, 아내와 저는 아들에게 마침 필요한 가방 세트를 선택했어요. 제가 회사로 선물을 받고, 퇴근해서 아들이 잠들기 전에 선물을 전했는데, 공룡 문양의 책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잠들기 전까지 가지고 놀더라고요. 특히 아빠 회사에서 줬다는 말에 너무 좋아하면서 언제 또 주느냐고 물어보네요. 하하. 아들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할 수 있게 해준 법인에 정말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형하고 잘 지내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재미있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엄마, 아빠는 기대하고 사랑한다!" **김무제 S.Manager (MCS2)**

내 마음에 꼭
공룡 책가방



두근두근
최고의 선물



◦ **엄마 회사의 산타 할아버지가
보낸 선물!**

회사에서 보내준 입학 선물은 둘째의 입학을 더욱 설레게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1년 먼저 입학했던 누나가 있던 터라, 초등학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거든요. 선물을 받은 아들이 '본인이 학교 가는 걸 어떻게 알고 선물을 보냈냐?'며, 엄마 회사 대장님이 혹시 산타 할아버지가 아닌지 의심을 하기도 해서 가족들이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입학할 기다린 만큼, 행복한 초등학교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겸아!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손지은 S.Manager (ITS)

일등은 한 명이지만 일류는 다르다.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일등보다 일류가 되어라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은 줄 세우기와 승자 독식의 세상이었다.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란 유행어도 등장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선 너나 없이 일등이 되어야 했다. 문제는 일등을 한다 해도 잠시뿐 인데다, 작금의 변화의 격랑 속에선 도무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가적으로 보아도 한국은 지금까지 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을 사용해서 대성공을 거둔 나라다. 그러나 이제는 선도형(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한 전 세계 단 7개국만이 합격한 '5030클럽(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멤버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국가도, 정부도, 사회도, 개인도 전면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일등보다 일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No.1'보다 'Only 1'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일류(一流)'란 무엇보다 나와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다양성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현재 우리 사회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대표적 문제 중 하나는 '다름'에 대한 거부감이며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다. 이 세상에서 다양한 것만큼 강한 것은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일사불란식의 경직되고 획일화된 조직문화를 전면 재편하는 일이다. 요컨대 "다름(different)과

틀림(wrong)은 다른 것이다”라는 선진형 각성이 널리 확산, 공유되어야 한다.

우선 일류기업은 쓰는 용어부터 다르다. 전자제품 회사가 전국적 애프터서비스(A/S) 망을 운영하고 있다는 광고는 뒤집어보면 고장이 자주 난다는 자백이다. A/S 자체가 없는 게 진짜 일류다. 이는 품질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 일류 회사는 영업부서가 없다는 이야기와도 비슷하다. 이류 중국집은 배달을 해주지만 일류는 가서 먹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순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으며, 명품은 호객하지 않는다.

한편 사람에도 일류와 이류, 삼류가 있다. 그 기준은 “전체를 위해 자신을 얼마나 바칠 수 있는가” 하는 그릇의 크기다. 사소한 이익에 목숨을 거는 인간이야말로 삼류가 아닐 수 없다. 일류 인간을 가리켜 동양에서는 군자(君子)라 부른다. 『논어』에서는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해 버리는 사람(小人)에 비해 군자, 즉 대인(大人)은 어려울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사람이라 풀이하고 있다(君子固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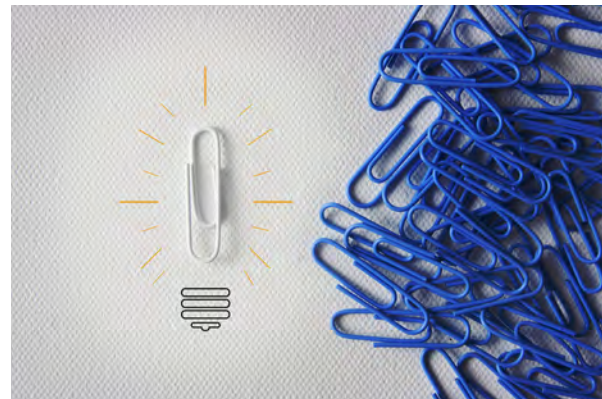
일류와 이류의 차이는 일차적으로는 품질의 차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품격의 차이이다. 품질에서 ‘질(質)’은 바탕을 의미한다. 무릇 세상의 이치란 먼저 바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세워야 한다. 세운다는 것은 ‘격(格)’이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질(質)에서 품(品)을 지나야 격(格)에 이르게 된다. 격(格)이란 원래 나무에 새긴 눈금으로 우리 말로 하면 ‘~답다’의 뜻이다. ‘아름다움’이란

말의 본질이 바로 나다움을 의미하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인격자란 말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일등과 일류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필자는 일류로의 가치 이동(value migration)으로 이하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① 검색보다 사색이다
- ② 지식보다 상상이다
- ③ 수치보다 가치다
- ④ 성공보다 성장이다

결국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드는 법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일등은 한 명이지만 일류는 다수,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일류가 되면 너도 일류가 된다. 일류가 되기 위해선 일류를 경험해 봐야 일류가 될 수 있고 일류의 가치와 중요성도 알게 된다.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을 움직이는 50인’에 등재된 교보 광화문출판에 두줄칼럼 중 대표작 <겸손>이 최종 선정되어 주요 도시에 전시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칼럼(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나만의 마음건강 레시피 만들기

TV, 유튜브 혹은 책을 통해 얻는 심리학적 상식들, 스트레스 대처법들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전문가를 찾아갈 시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대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최은영 상담사를 통해 우리 스스로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레시피에 대해 들어봤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마음건강 관련 정보의 홍수다. 서점에 가도, SNS에서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마음건강,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이 넘쳐난다. 관련 종사자로서는 참 반가운 일이다. 상담 장면에서 심리학 지식이나 대처법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늘었다. 마음건강 관련한 어려움이 생기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받는 콘텐츠를 시청하기도 한다. 한편, 심리학 유행 속에 과도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나에게 딱 맞는 정보를 찾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 전 예전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마음이 답답할 때면 정보를 자주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많은 정보를 보다 보니 뭐가 나와 잘 맞는 정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감정 일기를 써라,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봐라, 주 3회 운동을 하라는 등의 심리 대처법들을 실천해 봤지만 반짝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 별 의미가 없었어요. 나에게 적합한 심리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

마음건강을 다지는 법도 신체 건강을 기르는 법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원칙적이다. 운동 영상을 앉아서 신청하며 ‘눈으로 운동하는 것’과 ‘실제 운동을 하는 것’이 같을까? 마음건강도 마찬가지다. 얼핏 시시해 보이는 대처법들도 실천으로 옮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크다. 게다가 마음은 본래 타고난 기질이 다 다르고, 성장하면서 빚어진 모양이 제각각이다 보니 어디부터 접근을 해야 할 지 막막할 때가 많다. 나에게 꼭 맞는 개별적인 마음건강 증진법을 가질 수 있을까? 첫 시작점을 잡는 것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를 소개한다.

○ **자신에 대해 잘 알기**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가장 만족스러운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차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쉬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맛있는 것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걱정 없고 행복한 삶”과 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답을 하기 마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왜 걱정 없는 삶을 바라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한가?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이 어떤지 생각해두는 것은 대처 향상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말수가 없어서 소통을 차단하는 사람들은 내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소 회피적으로 행동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주변 사람들에게 황급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진정시킬 위안의 말, 공감이 중요한 편이다. 혹은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짜증이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조급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을 살펴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가장 만족스러운가’는 나를 알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삶의 의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변으로부터 ‘너가 있어서 참 위안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뿌듯한 사람이 있고,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평가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 내가 어떤 존재이기를 바라는지 생각해 보자. ‘나 전문가’가 되려면 자신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많아야 한다.

무엇보다 ‘문제점 발견→솔루션 찾기’라는 틀에 얽매이지 말자. 마음은 의외의 단서에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자 융(Jung)은 ‘사람들은 변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변하고 싶어하지 않고, 변화를 제일 거부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고 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조급함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편

하게 마음을 가지고 ‘나의 기초’를 쌓아 보자.

요리를 바로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레시피들을 찾아보며 책갈피를 꽂아 둘 수 있다. 그러다 어느 봄날, 향긋해진 봄 내음을 맡으며 그간 봐왔던 레시피 중 마음에 드는 방법을 요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음건강 관련 글을 읽거나 영상들을 보면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팁들을 골라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보자. 많은 분들의 다양한 레시피가 기대되는 순간이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에서 상담, 위기 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정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2022 KPMG 아이디어톤’ 개최, 탄소중립 실현 위한 AI 기술 주제로 경합 펼쳐

태양광 설치 및 플랫폼 제안한 파인애플팀 우승



지난 2월 22~23일 양일간 열린 ‘2022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파인애플팀(Fine Apple, 서울대·한국외대·연세대·명지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KPMG 아이디어톤’은 KPMG 글로벌이 주관하는 KPMG Ideation Challenge(KIC)의 한국 지역 대회로, 올해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솔루션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서류 심사에 통과한 10개팀 55명의 학생들이 모여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지난 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프로그래밍 등 아이디어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2월 22~23일 양일간 팀 별로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김건우, 전우재(서울대), 홍예은, 민선아(한국외대), 조정빈(연세대), 임성빈(명지대) 학생으로 구성된 파인애플팀은 가정용 태양광 설치 올인원 서비스와 태양광 발전소 개인 투자 플랫폼을 선보여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한 핑크카우렘팀(Pink Cow Lab., 연세대)은 친환경 소비 패턴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탄소 저감 인센티브에 손쉬운 접근을 이끌었다. 3등은 쇼핑몰에서 상품별 탄소배출량 추정을 통해 저탄소 소비를 돕는 솔루션을 제안한 피그말리온팀(Pygmalion, 연세대)이 수상했다.

우승팀에는 1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며, ESG 멘토링도 제공될 예정이다. 오는 5월 중에는 국가별 우승팀을 대상으로 KPMG 글로벌에서 축하 및 시상도 진행된다. 준우승팀과 준준우승팀에는 5백만 원과 3백만 원이 차등 수여됐다.

제3회 KPMG 아이디어톤 우승팀 미니 인터뷰



파인애플팀 김건우, 조정빈, 홍예은, 민선아, 임성빈, 전우재 학생



“최근 화두인 ESG에 관심을 가지던 중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뜻깊다. 개발팀과 비즈니스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술의 전개 방식 및 현실성에 대한 상호 피드백이 잘 이루어진 것이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내년 개최될 대회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기술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풀어내는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사회를 돕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이 대회를 적극 추천한다.”

김건우 학생 (서울대 경영학·컴퓨터공학)



핑크카우렘팀 황규현, 박영한, 유재인, 김연수, 정운채, 장기덕 학생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들이 잘 갖춰졌고 책임감 있게 각자의 역할을 해준 덕에 우승이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생각을 실제 서비스화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 기회가 흔치 않은데 삼성KPMG는 서버 제공뿐만 아니라 현업 전문가들의 멘토링도 제공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여인데, 내년에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

황규현 학생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



피그말리온팀 송예원, 안민용, 안정인, 신유진, 전재현 학생



“우여곡절 끝에 결성된 팀이고, 아이디어 수정도 여러 번 거치면서 힘든 과정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왔는데, 뜻하지 않게 수상까지 해 기쁘고 감사하다. 각자 맡은 분야가 확실했던 것이 우리 팀의 강점으로, 개발과 비즈니스팀이 각자 전문성을 갖고 임했다. 또한 삼성KPMG의 전문가들이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피드백을 많이 줘서 감사했다. 결과를 떠나 현업 전문가들을 만난 것만으로 값진 경험이었다.”

송예원 학생 (연세대 전기전자공학)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 3’ 발간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은 지난 2월 23일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3’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공통으로 지적된 내부통제 영역의 주요 비적정 사유는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한국 26.8%, 미국 22.8%)이었고,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한국 14.4%, 미국 19.1%)도 주요 사유로 꼽혔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이 없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을 담았다.

*Contact: 강환우 이사 hwanwookang@kr.kpmg.com



박성원 전무, KPMG ASPAC M&A Head 선임



삼정KPMG Deal Advisory3본부의 박성원 전무가 KPMG ASPAC M&A Head에 선임됐다. KPMG ASPAC은 박성원 전무를 KPMG ASPAC M&A Head에 선임함으로써, ASPAC 전반에 걸친 Deal 자문 및 M&A 리더십과 협력하여 ASPAC 지역의 전략 및 협업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박성원 전무는 23년 이상의 M&A 자문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한국 주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고객사들에게 국경을 뛰어 넘는 거래를 진행해왔다.

허세봉 부대표, 신임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임



삼정KPMG 허세봉 부대표가 한국회계기준원 신임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선임됐다. 허세봉 부대표는 회계기준·품질관리·내부회계관리제도 등 회계감사 부문을 중심으로 업력을 쌓아왔다. 또한, 기준원에서 K-IFRS 관련 실무적용위원회 위원,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을 지내며 회계기준 해석 업무를 맡은 바 있다. 허세봉 부대표는 오는 3월 3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위원직을 맡을 예정이다.

‘2022 개정세법 설명회’ 웨비나 개최

삼정KPMG가 지난 2월 17일 ‘2022 개정세법 설명회’를 온라인 웨비나(Webinar)로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1,342명이 동시 접속했으며, 삼정KPMG의 홍하진 상무, 김형곤 상무, 민우기 상무, 최은영 상무, 홍승모 상무 등이 2022년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Tax) 윤학섭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 차, 바이오와 헬스 등 미래 유망 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국내 R&D, 생산이 시급한 관련 기술을 포함해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됐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웨비나는 ‘삼정KPMG 아카데미(<http://kpmgacademy.co.kr>)’를 통해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Contact: 박상우 상무 sangwoopark@kr.kpmg.com



‘감사위원회 저널 20호’ 발간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는 지난 2월 21일 ‘감사위원회 저널 2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정적 감사(검토) 의견 사유를 제시하며 재무제표 수정,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자금 통제 미비 등을 포함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의 원인을 짚으며, 자금 출금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일회용비밀번호(OTP) 관리 미흡, 자금 일보상의 증빙 조작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성을 분석했다.

*Contact: 강환우 이사 hwanwookang@kr.kpmg.com

INTRODUCE

신규 영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Deal Advisory2본부 배재환 상무 영입

삼정KPMG가 2월 14일자로 Deal Advisory2본부에 배재환 상무를 영입했다. 배재환 상무는 그동안 건설사 등 회계감사 업무 수행 및 NH/산업단지공단 등 원가검토 업무를 비롯하여 매각자문, 개발사업 재무자문, 사업타당성 검토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Deal Advisory2본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재환 상무는 “국내 부동산 재무자문 분야 Top Tier 자문사로 도약한 삼정KPMG 일원이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부동산 개발 Cycle 전 단계 상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부지 개발 단계 재무자문 서비스에 최고의 전문성과 품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사 소감을 전했다.



배재환 상무 (Deal Advisory2본부) 경력

- 안진회계법인 FAS 부동산재무자문본부 (2016년 2월~2022년 2월)
- 한영회계법인 TAS 부동산재무자문본부 (2013년 6월~2016년 1월)
- 삼정회계법인 IGH본부 (2008년 9월~2013년 5월)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성KPMG 아카데미



삼성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성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성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